



2018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기본소득, 한국사회의 미래를 비추다

일시: 2018년 11월 23일(금)~24일(토)

장소: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3층 바실리오홀

2018. 11. 24 (토) 13:00 ~ 14:30

〈세션5〉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사회: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발표1: 4차 산업혁명과 공동부-데이터 가치론
강남훈 (한신대)

발표2: 탈노동사회, 기본소득, 탈자본주의: 비판과 대안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발표3: 4차 산업혁명과 '정의로운 민주주의'
권정임(한신대 SSK팀)/강남훈(한신대)

탈노동사회, 탈자본주의, 기본소득 - 비판과 대안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2018년 11월 24일 기본소득연합학술대회 발표

I. 오늘날의 자본주의: 플랫폼 자본주의

1)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자본주의의 대두

- **위기와 재구조화** (금융적 발생사적 측면): 닷컴 버블, 2008년 위기와 재구조화, 초저금리 양적 완화, 금융수익율 저하, 고수익 기술기업으로 투자 유입, 애플, 구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은 2017년 세계5대 Superfirm.
- **기술적 전환적 측면**: 1) 1990년대 이후 연속적 과정으로서 디지털 전환. 2) 신국면: platform + AI = GI(General Intellect)
- **사회 전체의 재구조화**: 1) 디지털 전환의 전체 과정에서 기술적 실업 증대와 고용의 변화, 2) 신국면: 플랫폼 자본주의는 생산뿐만 아니라 교환과 소비, 사회적 재생산 전체에 걸친 재구조화

2) 플랫폼 자본주의의 핵심 특징

- **데이터의 중심성**

데이터는 추출 분석 정돈된 기록물. 데이터는 비물질적이지 않다. 원재료로서 석유에 버금가는 역할. Srnicek (2017): Haskel and Westlake (2017). 빅데이터 인클로저

- **네트워크 효과 - 이윤창출메카니즘**

네트워크 효과를 통한 지대수익 추구. 이용자 수를 늘리기 위한 교차-보조(cross-subsidization)는 린 생산의 과잉설비 축소와 정반대.

- **사회인프라에 대한 독점적 소유**

독점화 경향, 네트워크 효과에 의존하는 이윤창출메카니즘의 필연적 결과. 하지만 플랫폼 기업의 고유 분야는 없기 때문에 독점적 경쟁관계. 생산기업과 달리 리즘적 방식의 확장. AI 개발과 차액지대 획득. 사회인프라 그 자체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소유(SmartCity). Capitalism as a Service

II. 일자리 없는 사회

1) 디지털 전환과 일자리: 두 가지 상반된 예측

일자리 희소화 - Frey & Osborne (2013), WEF (2016)

약한 반론1: 직업(job) 대체가 아닌 직무(task) 대체(Arntz et al., 2016)

강한 반론2: 대체효과는 단기적, 중장기적으로 보완효과와 생산효과가 더 크다(Goos et al., 2014; Graetz and Michaels, 2015; Gregory et al., 2015; Mokyr et al., 2015; Marcolin et al., 2016; OECD, 2015)

재반론: 반론2는 생산확대를 전제, 기술변화는 필연적으로 기술적 실업 낳음. 보상이론(Kompensationstheorie) 비판(맑스, 자본 1권, 13장, 6) 확대재생산 없이는 일자리 희소화 불가피. 반론2는 생태적 한계 무시. 생태적 한계를 인정한다면 사회재생산의 전면적 상품화 이외에 시장 일자리 해법 없음. Servant as a class (Morel, 2015)

II. 일자리 없는 사회

2) 일자리 양극화

숙련편향 기술변화 가설: 기술혁신은 고임금 일자리를 늘린다.

단순반복 대체 가설: 디지털화는 회계, 사무, 반복생산, 감시 등 루틴 업무를 대체하여 중간층 일자리가 없어진다. 반면 창조성을 요구하는 고임금 일자리와 대면적 업무능력을 요구하는 저임금 일자리가 늘어나서 일자리 양극화가 나타난다. Autor, Levy and Murnane(2003), Autor and Dorn(2013)

3) 깃 노동, 플랫폼 노동의 확대

- 주문형 앱노동과 클라우드 노동: Berg and De Stefano(2018), Huws(2018)
- 전통적 고용보험과 노동법적 보호장치의 사각지대(De Stefano, 2016)

III. 기본소득 논의의 현재적 지평과 새로운 도전

- 현재적 지평: **Platform capitalism, jobless society**
- Jobless Society와 **방어적 사회정책적 대응의 한계**: short term solution으로서 EITC/JG에 대한 선호, 기본소득은 일자리 희소화가 전면화될 때 비로소 필요한 정책으로 후순위 배열될 우려. 일자리 질의 저하나 일자리/소득 탈동조화에서 필요성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 불평등 해소에서 가장 효과적인 정책임을 입증할 수 있더라도 차차기 정책으로 취급될 우려.
- **새로운 도전**: Contemporary capitalism에 대한 인식과 분배정의론의 결합. 분배정의론으로서 공유부 배당론. 공유부 기반 경제로의 이행과 기본소득의 관계에 대한 해명
 -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의 핵심 문제: 빅데이터는 누구에게 속하는가?

III. 기본소득 논의의 현재적 지평과 새로운 도전

- **보다 이론적인 질문들:** 탈노동사회(post-work society)는 탈자본주의와 같은가? 바야흐로 자본의 코뮤니즘이 도래했는가? 탈자본주의는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는가? 해방적 기본소득이란 단지 지급수준 문제인가? 이러한 질문은 자본주의와 생산적 노동의 상관관계에 대해 묻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혁신과 사회전환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묻고 있다.
- **적극적 사회정책적 차원, 분배/소유정의론적 차원, 탈자본주의적 사회전환의 차원의 결합**
- **재원문제: 근로소득 대중과세 불가능성. 공유부 모델의 중요성. 소유관계의 중요성.** 하지만 "생산수단에 대한 공공소유(public ownership)는 소득분배에 대한 특정한 유형을 포함하지 않는다"(Van Parijs, 1995: 9). **탈자본주의의 새로운 지표가 필요(화폐환류법칙의 변형을 위한 소유권 혁명)**

IV. 탈노동사회/탈자본주의론 비판

1) 리프킨(Rifkin, 2014)

기술결정론적 편향: 디지털 자본주의의 기술적 과정이 탈자본주의로 이어짐.

재화의 성격 변화: 디지털 재화는 **비배제성, 비경합성, 한계비용 제로**. 지적 재산권 체제에 의한 보호 없이는 상품일 수 없음. 디지털 재화와 자본주의적 상품생산의 모순은 시장메카니즘의 파괴, 소유권의 공동화, **노동과 이윤 사이의 연관관계의 파괴**, 결국 탈자본주의로 나아간다.

'노동의 종말'(Rifkin, 1995). 자동화, 탈노동, 탈자본주의를 동일한 변화로 취급, 물질적 생산에 대한 **노동투입 없이도 경제가 작동하면 이미 자본주의가 아니라고 전제함**.

IV. 탈노동사회/탈자본주의론 비판

2) 메이슨(Mason, 2015)

- 디지털 전환에 대한 **경제사적 분석**에서 출발. 위기 탈출을 위해 디지털 전환을 추구하지만 **디지털 자본주의는 안정적 기초가 없음**. 이유: 1) 디지털 재화에 대한 리프킨의 설명을 받아들임. 2) 전통 맑스주의의 투하노동가치론에 따라 디지털 전환이 탈노동, 가치창출 기반의 잠식, 잉여가치 생산 정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
- 가치기반 잠식이 자동적으로 탈자본주의로 이어지지 않다고 말하면서 **정치적 개입의 중요성 강조** (리프킨과의 부분적 차별성): **탄소배출의 축소, 금융시스템의 사회화, 공유지 생산의 촉진, 지대적 비즈니스모델의 규제,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 등. 탈자본주의를 위한 정치적 개입은 국가기구가 아니라 권위적이지 않은 **사회적 네트워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IV. 탈노동사회/탈자본주의론 비판

3) 셔니섹과 윌리엄스(Srnicek and Williams, 2016)의 가속주의(accelerationism)

- 노동투입 축소를 탈자본주의와 동일화. 투하노동가치론(Srnicek, 2017; 2018에서는 모호한 입장)
- 자동화를 통해 노동투입을 축소하는 가속주의를 좌파 정치전략으로 삼음
- 더 높은 기본소득-더 많은 자동화-가속적 탈자본주의(자동화의 임금하락 효과를 역전시킴)

4) 바스타니(Bastani, 2015): fully automated luxury communism

IV. 탈노동사회/탈자본주의론 비판

5) 비판1: 투하노동가치론에 대한 비판

- 맑스 연구/맑스주의의 두 조류: 노동자계급 맑스주의(투하노동가치론), 사회비판적 맑스주의: 70년대 이후의 새로운 맑스 독해(Neue Marx-Lektüre/New Reading of Marx)
- 가치는 사회적 관계이며, 잉여가치 원천은 추상적 노동. 여기에 덧붙여: 시차적 관점(상품가치는 투하노동시간량이 아니라 미래시제에 투하되어야 할 노동시간량을 표현)
- 새로운 독해(NML)의 관점에서 볼 때 가치형식 없이는 가치실체가 없고 가치척도 곧 화폐 없이는 가치실체와 가치형식은 있을 수 없음(화폐론적 가치론). 실체(추상적 노동의 시간)가 (화폐)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화폐)표현됨으로써 실체가 구성됨.

IV. 탈노동사회/탈자본주의론 비판

5) 비판1: 투하노동가치론에 대한 비판

- 맑스 연구/맑스주의의 두 조류: 노동자계급 맑스주의(투하노동가치론), 사회비판적 맑스주의: 70년대 이후의 새로운 맑스 독해(Neue Marx-Lektüre/New Reading of Marx)
- 가치는 사회적 관계이며, 잉여가치 원천은 추상적 노동. 여기에 덧붙여: 시차적 관점(상품가치는 투하노동시간량이 아니라 미래시제에 투하되어야 할 노동시간량을 표현)
- 새로운 독해(NML)의 관점에서 볼 때 가치형식 없이는 가치실체가 없고 가치척도 곧 화폐 없이는 가치실체와 가치형식은 있을 수 없음(화폐론적 가치론). 실체(추상적 노동의 시간)가 (화폐)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화폐)표현됨으로써 실체가 구성됨.

IV. 탈노동사회/탈자본주의론 비판

5) 비판2: 디지털 자본주의의 불안정성 또는 디지털 자본주의만 유독 불안정한가?

- 리프킨/메이슨은 지적재산권 체제와 디지털재화의 비배제성을 불안정성의 원인으로 봄. 플랫폼 자본주의는 지적 재산권 체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네트워크 효과가 중심임.
- **노동투입 축소-이윤기반 축소-탈자본주의론의 문제점: 생산주의 패러다임(productionist paradigm)의 협소함.** 직접적 생산과정 외부에서도 가치창출이 가능하며 임금노동 기반을 벗어나서도 자본축적이 가능하다. 적어도 이 점에서는 포스트오페라이즘(Postoperaism)이 더 나은 설명틀(Boutang, 2012; Lazzarato, 2016)
- 생산이 아니라 혁신(업그레이드)가 이윤창출의 원천인 자본주의: 기술혁신은 특별잉여가치, 곧 특별이윤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윤생산방식. 디지털 재화가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되듯이 부단한 혁신에 의해서 이윤. 임금노동자가 아니라 임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들이 이윤창출에 더 기여하고 있을 수 있음.
- 이윤의 지대화는 새로운 형태의 불안정성일 뿐, 이윤 자체가 이미 불안정한 사회형식.

V. 자본의 코뮌주의?

- 비물질 생산(Lazzarato, 1996)
- “척도의 위기”(Marazzi 2008: 43; cf. Negri 1996; Hardt & Negri 2001), 다중의 생산성
- 자율주의는 반생산주의 패러다임? ‘측정불가능성’을 말할 때 생산주의적 투하노동가치론을 전제함.
- 비판: 자연적 척도와 사회적 척도의 구분. 사회적 척도는 자연적 척도처럼 측정 이전에 양으로 존재하지 않고 측정 과정과 동시에 성립. 화폐는 자본주의의 가치척도. 화폐형식이 존재하는 한에서 척도의 위기는 없음(Engster and Schröder 2013; Engster 2013a; Engster 2013b; Postone 2012).
- 측정불가능성으로부터 기본소득을 정당화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음.

V. 자본의 코뮌주의?

- 맑스 '기계에 관한 단상'(Maschinenfragment: MEW 42, 590~609): 1) 자동화를 통한 노동투입 축소와 탈자본주의를 연동한 논의는 자본1권의 논의에서 채택되지 않은 단상(Heinrich 2013), 2) 기술적 실업과 보상이론 비판은 자본 제1권에서 상대적 과잉인구 개념으로 발전.
- 자본의 코뮌주의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만약 가능하다면 플랫폼 자본이 통제하는 GI의 구축과 조세형 기본소득 도입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캘리포니아 이데올로기의 심층적 배경)

VI. 일반지성 자본주의와 탈자본주의

1) 일반지성 자본주의

- 플랫폼 자본의 GI가 등장, 조세형 기본소득으로 소비기반 유지, 총자본가로서 국가 기능의 변화(거시경제적 조정자에서 대체임금 지불자로)
- 하지만 화폐환류법칙은 불변
- 현재 상태 자본주의보다 진보적, 하지만 이 이상의 사회형식으로 자동적으로 진화하는 것은 아님.

2) 탈자본주의

- 공유부 배당은 공유부에 대한 모두의 소유를 전제
- 화폐의 폐기가 아닌 화폐환류법칙의 변화